

<http://dx.doi.org/10.17703/JCCT.2018.4.3.99>

JCCT 2018-8-12

문화유산산업의 발전에 대한 제언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cultural heritage industry

김시우*

Sea Woo Kim*

요약 문화유산 산업은 한나라의 흥망성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의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이를 통해 나라의 상황에 맞게 고쳐 나아가, 문화유산 산업 발전 관련 정책을 제시한다. 특히 '젊우미'라는 제도를 제안해, 청년취업과 문화유산 산업 증진의 두 가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위해 문화재 보존 인력양성, 문화재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 와 문화재 스토리 발굴을 제안한다.

주요어 : 문화 유산 산업, 문화재, 문화재 관련법

Abstract This research focus on suggesting productive proposal for Culture heritage industry improvement plan. we survey various other countries' policy for culture heritage industry development. It is important to collect ideas from other countries' cases then expand and adapt to our country's industry. Detailed proposal for Cultural heritage is suggested, Such as, young Cultural helper to increase the cultural activity participation. Three factors are stated, first cultural man power creation, digitalizing cultural asset data, and cultural asset story making.

Key words : Cultural heritage Industry, Cultural asset, Cultural policy

1. 서 론

나라의 발전과 문화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일까? 현대에는 많은 나라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여행과 관광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란? 인간에게만 있는 생각과 행동 방식 중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배우고 전달받은 의식주,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즉 '문화'를 배제하고서는 많은 것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몽골을 볼 수 있다. 몽골은 문자라는 중요한 문화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의 발전이

힘들었고 불안정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몽골은 큰 영토를 가진 반면에, 문화를 보존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쇠퇴했다.

몽골보다 작은 다른 나라들은 나라의 정체성인 문화를 보존하는 데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 모두도 처음부터 문화에 대한 소중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들 모두 한때 문화에 대한 소홀함으로 인해 나라의 전체적인 피해를 입었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은 그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2]

프랑스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화재에 대한 전문 인력

*정회원,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접수일: 2018년 6월 5일, 수정완료일: 2018년 7월 3일

게재확정일: 2018년 7월 18일

Received: June 5, 2018 / Revised: July 3, 2018

Accepted: July 18, 2018

*Corresponding Author: nt21jjang@naver.com

Family welfare, Soongui Women's College, Korea

양성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재 관리에 힘썼고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자국민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관리에 힘쓰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불과 몇 년 전 ‘승례문 화재’ 사건을 겪었지만, 아직도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보다 부족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 전문 인력양성과 디지털화, 스토리화 3가지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II. 관련 연구

1. 해외 문화 보존 노력 사례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49년 범룡사의 금당벽화 등의 국보급 문화재 소실로 인한 충격으로 1950년 ‘문화재 보호법’을 성립했다. 중앙정부의 문화재 관리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도 문화재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주체성을 가지고 제정 및 시행했다. 그리고 거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문화재 유지와 관리에 힘썼다. 이를 통해 문화재 관련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즉 일본은 문화재 보호와 지방자치 관계가 단순히 법률적인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상생을 도모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문화재 관리에 뛰어난 선진국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문화재에 대한 과오를 반복 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간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지에서 ‘검투사의 집’, ‘도덕주의자의 집’ 등이 붕괴됐다. 붕괴 이유는 국지성 폭우와 관리의 소홀함 등으로 알려져 있다. 2차 대전 당시 손상된 폼페이 건축물을 줄속으로 복구한 점은 중요 요인 성과로 파악되지만 2000년 된 벽이 시멘트로 복구된 무거운 지붕을 이기지 못했다. 또한 성 프란치스코 성당 벽화는 1997년 지진으로 인해 돌조각이 되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탈리아는 문화유산의 붕괴와 외해를 겪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업들, 유명 패션잡화브랜드와 명품브랜드 회사의 지원이 문화재 보수를 가능하게 했다. 이탈리아의 대기업들은 예술 후원을 최고의 명예

로 여기는 풍토가 있으며, 문화재 보존 예산을 대는 것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국립 미술품복원학교다. 국립 미술품복원학교는 정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로서, 학비의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며, 오랜 연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다. 국보급 문화재 등 자국 및 세계의 문화유산을 복원 및 보존하고자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문화재 복원 전문가(유물주치의)를 양성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크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XX’(로마 숫자 20)라고 적힌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프랑스 한 건물 앞에 ‘XX’ 표시판이 있다면 그 건물은 곧 기술·사회적·문화적으로 우수한 프랑스 20세기 도시·건축 유산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문화통신부에서는 20세기 도시·건축 문화유산의 가치를 입증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20세기 유산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을 받은 도시·건축 유산만이 ‘XX’ 표시판을 부착한다. 선정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보전 대상 목록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후 작성한 목록은 지방 문화재 심의 위원회를 거친다. 도지사 승인을 받고 난 뒤에 표시판을 제공받고 20세기 유산으로 인정받는다.



그림 1. 프랑스 20세기 유산 인증
Figure 1. France 20century property confirmation

현재까지 2000여건 이상 도시·건축 유산이 20세기

유산으로 인증됐다. 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역사적 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다. 2006년에 파리 근교에 위치한 18세기 고성의 내부 천장이 무너져,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다. 프랑스는 가급적 빠른 복원이 아닌, 얼마나 제대로 복원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7년간의 복원을 거쳐 재개장했다. 그리고 문화재 복원의 철칙으로 삼는 것은 1964년 제정된 베니스 헌장으로, 역사와 예술적 가치를 고려한 복원, 유물의 훼손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복원 등 복원 윤리를 강조한다. 프랑스는 어떤 문화재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트르담 성당이나 개선문과 같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곳만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화유산을 평등하게 관리하고 있다. [3] 이처럼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에 앞장서서 노력하는 문화 강국들을 보면, 대체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강국임을 알 수 있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전과 관리가 나라의 흥망 성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2.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실태

1)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보존 실태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유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 가는 실정이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턱없이 부실한 면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승례문을 볼 수 있다. 승례문을 복원하는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승례문 역시 부실 복원으로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 국민, 언론 모두가 감사의 취지를 공감했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형식적인 소방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검증되지 않은 건설기법, 불합리한 제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문화유산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거나 소실되고 있다. 이는 재외한국문화원의 부실한 문화재 관리가 실태로 드러난다. 재외한국문화원은 해외에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 체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하지만 주중한국문화원은 지난 2008년 이후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다, 2016년 초에서야 작품 분실을 알려왔으며, 분실 경위나 시점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중한국문화원이 분실한 전승공예품은 여러 차례 해외에 전시되었던 것이고 교과서에도 소개된 작품이다. 그리고 문화재 분실 사태가 한국말고도 미국에서도 드러났다. 주 뉴욕한국문화원의 현지 조사 결과, 고(故) 김

박영 궁시장의 ‘각궁’ 등 작가가 이미 사망해, 복원이 힘든 작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으며, 나머지 문화재 대부분도 홍보 효과가 거의 없는 사무공간에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해 홍보를 위한 반출된 문화재도 외국에서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문화재는 1년에 1차례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점검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프랑스, 이탈리아와 대조적으로 전문성과 정부, 기업의 지원 측면에서도 뒤떨어지는 상태이다. 2000년도에 개교한 문화재청 소속의 4년제 대학인 한국 전통문화대학교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에 대한 방안에 일환으로 문화재 전문인력을 만들기 위해 세워진 학교지만, 아직 이탈리아나 파리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재 인력양성 교육원의 수준이 되지 못하고, 그 수 또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보존과 관리에서도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

박물관의 경우, 특히 개인 박물관은 그 박물관이 폐쇄될 때 (박물관장의 사망등) 향후 박물관의 귀중한 물건들이 손실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박물관의 현실적인 문제점으로는 부족한 홍보와 시대에 뒤쳐진 경영과 운영 방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개인 소장품인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개인 소장품이 어떠한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 관련 박물관이나 학교 등에 전달하는 문화재를 보존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류가 인기를 얻음으로서 한류 스타의 생가를 방문하고 그 출신 학교를 방문하는 외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한류 스타의 소장품도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문화유산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한 나라의 문화를 중흥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것과 국가가 이 산업이 굴뚝 없는 새로운 사업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국내에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노력으로는 아시아 지역 문화다양성 증진과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재청과 EBS가 2016년 1월 19일 오전 11시에 업무약정을 체결했다.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몽골을 대상으로 50편의 영상 기록과 3편의 방송용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영상기록물들은 아시아지역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용·교육용 콘텐츠로 개발되어, 영상라이브러리 형태로 온·오프라인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앞으로 진행될 사업들은 귀중한 아시아 문화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III. 본문

문화유산 산업 지원 제안 ‘줍우미 프로젝트’

본 연구에서, 정부의 문화유산 산업 지원에 대한 2가지와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3가지를 ‘줍우미’를 통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문화유산 산업 지원에 대한 첫 번째, 정확한 분류와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분류체계는 다른 나라와 호환되지 않고 새로운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가 미흡하다.

문화유산 산업 지원에 대한 두 번째, 유실가능성이 있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정부에 헌납을 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가 문화재를 보관하고 이를 인수해, 관리해서 산업에 참여할 민간 혹은 정부 기관에 문화유산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화유산에 대한 산업 지원 제안은 문화재 보호는 나라의 정통성을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경제의 일부로서 우리가 계속 중점으로 관리해야 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문화재 전문 인력양성과 디지털화, 스토리화 3가지 측면을 제안하며 함께 ‘줍우미’ 제도 정책을 서술하고자 한다.

‘줍우미’란? 외국어에 능통하며, 안내자 역할에 대한 민간자격증을 도입한 것으로 박물관을 젊게 변화시키는 도우미에 의의를 둔다.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첫 번째, 문화의 발전을 위해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기 위한 것만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한 깊

은 이해를 통해 후대에 문화유산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관행을 없애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문화재를 위한’ 이념 아래서 교육되는 기관을 설립,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줍우미’를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춰 소규모 맞춤형 문화 관광을 제공하는 전문가로 서로의 공통적인 관심 문화를 중심으로 투어를 한다.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두 번째, 디지털화 즉 문화재의 ‘데이터베이스화’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로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과 각종 SNS를 통한 많은 기업들의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자정부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서류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각종 서류 열람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도 전자서류를 통해 결재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상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만이 아닌, 국민들에게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빈번한 접근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도록 한다. 인터넷이 되는 어디서든지 문화재에 대한 정보와 문화유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통해 문화재 유실을 예방할 수 있다. [6][7] 이에 ‘줍우미’를 통한 소규모 문화 탐방은 문화관광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해, 보다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 제공받고 서로 정보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문화 체험도 가능하다. 심지어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문화도 질적으로 깊이 있고, 간편한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문화 탐방을 통해 SNS와 많은 인터넷 매체를 활발한 홍보와 정보 교류로 이어가고 문화탐방에 대한 남녀노소의 생각을 일깨우게 해주면서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한다. 디지털화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미래 소비자들에게 문화탐방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세 번째로 문화재의 스토리화이다. 즉 스토리텔링으로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이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마케팅인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문화재 홍보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기법으로 브랜드의 특성과 어울리는 이야기를 만들어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마케팅의 일종으로 이미 영화, 드라마, 외식, 관광 등 문화산업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다. 똑같은 의자라 하더라도, 베토벤이나 모차르트가 앉았던 의자라고 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더 주목하게 된다. 즉 「명품의 스토리텔링」의 저자 이유진도 말했듯이 희소성, 꿈, 전통, 후광효과 등이 명품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로 이를 활용한 문화재 마케팅 효과는 뛰어난 것이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을 감성 마케팅을 통해 문화유산을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줍우미’를 통해, 기존에 박물관 가이드와 다른 초점을 둔다. 기존에 박물관 가이드는 이미 정해진 순서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소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박물관은 보다 깊이 있는 질문과 대화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특정 박물관에만 배치되어, 이마저 이용이 불편한 실정이다.[4][5] ‘줍우미’는 박물관을 젊게 변화시키는 도우미 역할로서 박물관에 있는 문화재에 관련한 이야기를 설득력을 주면서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전달한다.

IV. 결 론

앞서 제안한 문화유산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방안을 통해,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표에서 유추할 수 있다. 생산 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효과 및 취업 유발효과가 크게 증가해, 개별관광객 공략과 지방 관광 활성화에 힘을 실어준다면 더욱 안정적이고 높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과 데이터베이스화, 문화재의 스토리화를 통한 홍보는 문화재를 특정 인물만이 아닌 대중들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문화재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존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문화유산보존에 대한 3가지를 ‘줍우미’를 통해 박물관은 홍보효과의 증가와 다양한 연령층의 관람객 확보를 통해 수익 창출을 기대 할 수 있다. 관광객은 박물관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며, 소형 박물관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해질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의 자료의 디지털화로 문화유산의 손실도 줄일 수 있다. 또한 ‘줍우미’는 청

년 일자리 창출(특히, 어문계열 졸업자, 역사학 졸업자)을 통한 청년 실업률 감소와 향후 사업의 효과 증진과 더불어 전문직으로의 확장도 기대 할 수 있다.[8][9]

아직도 문화유산의 산업적 가치와 보존의 중요성을 정부에서 높게 평가 하고 있지 않다. 혁신적인 법제 개편과 적극적 문화재 개발 및 관광 자원 발굴이 가성비가 높은 산업 문화유산 사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방한 관광객 수(만 명)		생산 유발액 (조원)		부가가치 유발액 (조원)		취업 유발분 (만명)	
	'13	'20(E)	'13	'20(E)	'13	'20(E)	'13	'20(E)
아시아 신흥국	589	1,500	16.7	80.5	7.8 (0.5%)	37.5 (1.7%)	22	105
기타 신흥국	80	100	5.9	16.5	0.2 (0.0%)	0.7 (0.0%)	1	2
선진국	539	700	14.0	35.0	6.5 (0.5%)	16.2 (0.7%)	18	46
전체	1,217	2,300	31.3	117.2	14.5 (1.0%)	54.5 (2.5%)	41	153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 안은 명목 GDP 대비 비중.

그림 2. 2020년 방한 관광객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Figure 2. 2020 Visiinnng Korea CUStomers and Economic Effects

References

- [1] E. Lee and K. Kim. , “Design of Educational Training System for Contents Specialist for development of cultural contents in Asia”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1, No. 1, pp. 47-55, mar 2010.
- [2] Soojung Lee, “analytical study on the definition and nature of authenticity in heritage conservation” cultural properties, Vol. 45, No. 4, pp. 126-139, 2012.12.
- [3] Seungjoon Han, “A Study on the Typological Classification of the French Cultural Properties,” Proceedings of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pp. 2280-2300, 2010.10
- [4] J. Shim et al. “Research of the local cultural brand by analyzing the case of Honggildong cultural content business strategy”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Vol. 11, No. 4, pp. 479-486, dec 2010.
- [5] Korea Cultural policy research Cultural property Preservation Research 2007
- [6] C. Byun “Achievements and Problems of \Sustainab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 Local Cultural Heritage” Region and Culture
2017.6
- [7] Chunho Do “Chemical Approach to the
Conservation of Archeological and Culturally
Valued Wood” Preservation Science 1997.12
- [8] Chun Young Kim “Culture Contents Desig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2018.2
- [9] Jungae Kim, Euiyoung Cho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JCCT 2018.2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IJACT) pp.72-79 2018.6 pp.72-79